

‘제2의 북한’ 고심…이란, 핵무기 제조 결단하나

피격 후 강경론 드세…의회에선 NPT 탈퇴안 논의 예정

美당국, 위험성 관측…“미·이스라엘 막을 유일한 방법 고심”

미국으로부터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 정권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압도적 무력으로 영토가 연일 유린당하는 데다가 마지막 보루인 핵시설까지 타격받자 궁극의 억제력을 행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애브라함 레자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nim 통신에 핵확산 금지조약(NPT) 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해 대량살상무기 가무분별하게 폐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약이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IAEA와의 협력 혹은 관계 유지를 중단하는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NPT에서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레자에이 대변인의 발언은 이란 내부에서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가장 중대한 신호라고 뉴스위크는 짚었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란이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마리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입장에서 NPT를 비롯한 국제사회 핵확산 방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바라니 대사는 이란은 “유엔 헌장과 NPT의 책임감 있는 당사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NPT는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세계 190여개국 이상이 가입한 NPT에 가입했다가 도중에 탈퇴한 국가는 현재까지 북한이 유

일하다.

북한은 2003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들어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3년 후인 2006년 첫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전에 없는 위기에 몰려온 이란지도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해 북한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당국은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받으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이 담긴 칙령)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금지했고 이는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60%까지 끌어올려 무기급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90%에 다가서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우라늄 축수위를 60%까지 올린 것은 이란이 유일하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에 필요 한 투발 수단과 부품까지 만들어 핵무기 완성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21일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 핵시설 3곳에 전면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욕구는 한층 더 자극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NYT는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받은 피해에서 회복한다면 살아남은 핵 과학자들이 몰래 핵무기 제조에 들입할 수 있다면서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 드웰라 지역의 세인트 엘리아스 교회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현장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들과 구조대원들. 시리아 국영 언론은 교회 내부에서 총격을 기한 후 자폭해 19명이 사망하고 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UPI=연합뉴스

시리아 다마스쿠스 정교회 성당에 폭탄테러…20명 사망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정교회 성당에 자살폭탄 테러가 벌어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IS) 소속 테러범이 다마스쿠스의 드웨일라 마을에 있는 성 엘리아스 성당에 들이닥쳐 총격을 기한 후 폭발물이 든 조끼를 터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일요일인 이날 성당에서 미사가 열리던 도중 테

러가 발생했다며 시리아에서 기독교 예배당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함자 알무스타파 시리아 정보장관은 엑스(X·엣 트위터)에 글을 올려 “드웨일라의 교회를 겨냥한 폭탄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 비겁한 행위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시민의식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우리는 범죄조직과의 전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만, ‘여소야대’ 갈등 속 내달 야권의원 등 파면 투표

정부 예산안 삭감에 시민단체 등 추진

여소야대 구도인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자 내달 일부 야권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파면(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 결과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한 제1야당 국민당 소속 24명 등에 대한 파면 안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푸군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 왕훙웨이 국민당 입법원 서기장 등 국민당 소속 지역 입법위원 24명과 부

대 협의로 정직 중인 제2야당 민중당 소속 가오후안 신주시장에 대한 투표가 실시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음달 16~25일 이들에 대한 파면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6일 투·개표를 실시하고 8월 1일 선거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에 따르면 파면 1단계에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안건(파면) 제기와 함께 해당 선거구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2단계에서는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요건을 갖춰 파면 앤이 정식 성립되면 이후 20~60일 내 주민 투표가 진행된다. 파면 찬성투표 수가 반대보다 많으면서 해당 지역 유권

자의 25% 이상에 달하면 파면 앤이 통과된다.

앞서 지난해 1월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원내 제1당 지위를 국민당에 내준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다.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 여당 민진당은 51석을 확보해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당은 ‘캐스팅보트’를 휴제당과 연대해 과반을 형성한 후 민진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만의 마지막 날은 원전이자 지난달 17일 산업 운전면허가 만료된 남부 광동현 헝춘의 제3원전인 마안산 발전소의 재가동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8월 23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집행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3일 중국 매체 흥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하 마을에서 당시 7세에 불과한 여아를 금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실종 아동을 찾아달라며 공고를 내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끝내 피해자가 웃이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10만위안(약 1천924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사흘 만에 용의자를 피서방에서 검거했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있던 주자치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의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후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면서 숲으로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덟살도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주자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돼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이 소식은 범인에 대한 처형을 촉구해온 피해 아동의 부친이 사형 집행 소식을 법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전날 언론과 인터뷰를 해 알려졌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